한투 라.디.오
(Last Week, This Week, Today)

Key words: 중앙은행 회의와 정책

금주 preview

- 금주는 유로존 ECB, 영국 BOE, 일본 BOJ 회의 연이어 진행될 예정. 일시적으로 국채금리, 환율 불확실성 확대될 시기인 만큼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예상
- AI 관련주들의 실적 불확실성도 심화. AI 수요 증가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과잉에 대한 경계 이어지고 있기 때문
- 금주는 경기민감주,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고용, 물가 지표도 공개될 예정. CPI, PCE, 소매판매, 비농업고용, 실질임금 등에 더해 주택 지표들도 공개. 매크로 지표 발표에 따른 가파른 등락에도 대응 필요
- 금주 후반의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공격적 비중확대에는 신중한 모습 이어질 전망
- 다만 미국 S&P500 기업의 25년 4분기, 26년 상반기 실적 눈높이 상향되고 있고, 펀더멘털 대비 단기 조정 컸던 업체 비중 크다는 점이 지수 반등 동력으로 작용 예상
- 연말~연초는 트럼프 행정부와 AI 관련주의 지출 방향성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업체도 주목 가능.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야 하나, 주요 매크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이후 재진입 가능한 업체 선별해야 하는 시기

금주 투자 아이디어(ETF)

① **글로벌 금융**, IXG - 미국 대형 금융주에 더해 유로존,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 앞두고 주목될 업체 비중 높음.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 BOE의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에 따른 반등도 예상. 미국의 바젤 3 규제 완화 수혜도 기대

② **미국 우주/로켓**, ARKX - 미국 대표 우주 관련주로 구성. 로켓랩, 테라다인, 크라토스디펜스 등 미국 국방부 지출 증가 수혜 예상되는 업체 비중 높음.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되며 단기 조정 나타난 만큼 대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

③ **미국 제조/리쇼어링**, RSHO - 미국 대표 산업재/인프라 관련주들이 포함. 새로운 제조 시설 구축, 자동화/로봇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체 비중 높음. 자체 공급망 강화 수혜도 예상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주간 증시 review

[주말 증시]

-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1.1% 하락. AI/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됐기 때문. 나스닥 지수는 1.9% 하락

- S&P500 지수 내에서도 IT 업종은 전일대비 2.9% 하락. 반면 안전자산 선호심리 반영되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은 0.9%, 0.3% 상승.

- 실적 발표 이후 브로드컴이 11.4% 하락했고, 엔비디아, AMD 도 3.3%, 4.8% 하락.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대비 5.1% 하락

- 과도한 투자에 대한 부담 지속되며 오라클은 4.5%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되며 팔란티어도 2.1% 하락

- AI 인프라 투자 부담 확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1.0%, 1.8%, 1.0% 하락. 반면 테슬라는 2.7% 상승. 리비안의 자체 AI 칩 개발 기대감 반영

- 대표 배당주/내수주 강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펩시코는 1.8%, 1.1% 상승. 일라이릴리와 애보트 래보러터리는 1.8%씩 상승.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진 비자, 마스터카드도 0.6%, 1.5% 상승

[주간 증시]

- S&P500 지수는 전주대비 0.6% 하락. 나스닥 지수는 1.6% 하락. 12 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됐으나, 주후반 AI/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 직후 주가 하락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 AI 관련주의 실적 약화 부담 확산되며 S&P500 지수 내 커뮤니케이션, IT 업종이 전주대비 3.2%, 2.3% 하락.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도 1.1%, 0.8% 하락

- 반면 인프라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예상되는 업체는 반등. 소재, 금융, 산업재 업종은 전주대비 2.4%, 2.3%, 1.4% 상승. 안전자산 선호심리 반영되며 대표 내수주도 반등

주말 이슈 점검

이슈 #1.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따른 반도체주 하락

-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주가가 상승했으나, 단가 매출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장중 하락 전환

- 반도체/AI 관련주의 실적 불확실성 확대되며 브로드컴은 11.4% 하락.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동반 하락으로 연결

- 반면 당사는 브로드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유지. AI 커스텀 컴퓨팅의 선두주자이자, 네트워크 스케일업/스케일 아웃의 가속화 수혜 예상되기 때문

이슈 #2. 파월 의장 후임 후보 구체화

-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을 언급

- 추가적인 후보들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으나, 두 케빈을 직접적으로 언급.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주말 언급한 인사들도 동일한 입장임을 시사

- 파월 의장 대비 완화적인 인물이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 부각. 반면 미국 증시는 12 월 FOMC 회의가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의 실적에 더 초점 맞춰지는 양상

이슈 #3. 디지털 자산 관련주의 사업영역 확장

-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립토다섬, 칼시 등이 예측 시장 연합(Coalition for Prediction Markets, CPM)'을 공식 출범

- 최근 미국 법원이 선거결과 베팅금지 조치를 기각한 만큼 예측시장 성장 가능성 부각

-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증권 등 실물연계자산(RWA) 시장 성장도 가속화. 토큰화된 주식의 월간 이체규모는 14.5 억달러로 전월대비 32% 증가(rwa.xyz)

-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이 금주 행사 진행하는 만큼 슈퍼앱 도약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표 기대감 확대

이슈 #4. 일본은행(BOJ) 정책

- 일본은행(BOJ)이 12 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시킬 가능성 부각. 내년 봄 이후 추가 인상으로 정책금리가 1.0%에 달할 가능성도 부각

- 다카이치 내각 차원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앙은행 정책 방향성은 지속 예상

- 우에다 총재는 12 월 인상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대비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

이슈 #5. 사나에노믹스

- 다카이치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 구체화 기대감 확대. '책임있는 재정 부양책'과 경제재정협의외(CEFP)의 '고압 경제' 를 기반으로 정책 마련될 가능성 부각

-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 내각이 재정 지출 확대, 임금 인상 강화를 촉구. 최근 통과된 경기 부양정책은 21.3 조엔 규모로 물가 안정화, 국방강화, 성장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

[주간 주요 데이터 및 일정 점검]

주간 수익률(지수)

러셀2000 +1.2%
다우 +1.0%
닛케이 +0.7%
유로스톡스50 -0.1%
영국 -0.2%
MSCI 선진국 -0.2%
S&P500 -0.6%
나스닥 -1.6%

주간 수익률(S&P500 업종)

소재 +2.4%
금융 +2.3%
산업재 +1.4%
필수소비재 +1.1%
헬스케어 +0.4%
경기소비재 +0.3%
에너지 -0.6%
부동산 -0.8%
유틸리티 -1.1%
IT -2.3%
커뮤니케이션 -3.2%

주간 수익률 Top5/Bottom5(S&P500)

Top5: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15.0%), 모자이크(+11.0%), 몰리나 헬스케어(+11.0%),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10.3%),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10.2%)

Bottom5: 오라클(-12.7%), 오토존(-9.9%), 샌디스크(-9.8%), 로빈후드(-9.4%), Texas Pacific Land Corp(-9.3%)

주간 52주 최고/최저 종목 Top5(S&P500, 시가총액순)

52주 신고가 종목: 브로드컴(AVGO), 월마트(WMT), 존슨앤드존슨(JNJ), 코스트코(BAC), Cisco Systems Inc(CSCO) 등

52주 신저가 종목: 코스트코 홀세일(COST), 프록터 앤 갬블(PG), T-모바일 US(TMUS), 린데(LIN), 몬덜리즈 인터내셔널(MDLZ) 등

지표 발표 일정(한국시간)

[미국]

*12/15 (월) : 12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등

*12/16 (화) :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소매판매, 11월 비농업고용지수, 11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11월 실업률, 12월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종합 PMI 예비치 등

*12/17 (수) : MBA 모기지 신청건수 등

*12/18 (목) : 11월 CPI/근원 CPI,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11월 실질임금 등

*12/19 (금) : 10월 CB 고용동향지수, 9월 경기선행지수, 10월 PCE/근원 PCE 등

미국 예상 실적발표 일정(현지시간)

*12/16 (화) : 레나(LEN) 등

*12/17 (수) : 제너럴 밀즈(GIS), 자빌(JB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등

*12/18 (목) : 액센추어(ACN), 나이키(NKE), 페덱스(FDX) 등

*12/19 (금) : 콘아그라 브랜즈(CAG) 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